

셀 공과 제1과 (셀리더 용)

2025년도 뻔엘 가족과 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 :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본문 시편 121:1-8 찬송가 382장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셀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2025년에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가정, 자녀 환경 사업 교회와 셀부흥.....그 도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답을 말씀합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스라엘백성이 바라본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닙니다.

1)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산, 시온산, 감람산 이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예루살렘산, 시온산, 감람산은 같은 장소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성전이 산이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와 셀을 말한다.

이사야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 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삼중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좋지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라!

[토론식 대화 1]

우리가 아무리 힘(돈, 권력)으로 나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환경을 지키려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내 자신과 가정을 지킨다 해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건강도 내 자신이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2025년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4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①나의 길을 말기라 시편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말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이란?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②나의 영력을 주께 말기라 베드로전서 5:7 너희 영력을 다 주께 말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③나의 행사를 말기라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④나의 짐을 말기라 시편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말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기는 방법은 확신과 기도 밖에 없습니다.

둘째 보호는 오른 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5-6)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둘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은 기상변화, 기후변화 그리고 각종 재난과 전염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성전과 쉴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각종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보호는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 하신다.

(7-8)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에서 면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자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43:1-2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성도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주군과 신하의 관계등 환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을 지켜 주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길의 위험도 있고, 우상숭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말길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지켜 주심의 결과이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